

인터뷰 / (사)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유제인 신임회장

고유가와 교토의정서로 각광받는 ESCO사업

▶신임 회장으로서의 소감은?

협회의 위상정립 및 기능 확대, 회원사 확충, ESCO 시장발전을 위한 제반 건의활동 등 할 일은 많은데 주변 환경은 결코 낙관적이지않은 않다. 다행히 전임회장을 비롯한 신규 임원님들이 협회와 업계 발전을 위해 '한번 해보자' 하는 열의를 갖고 있고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니 든든하다.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뛰어볼 생각이다.

▶앞으로 어떻게 ESCO협회를 이끌어 나갈 계획인지?

작년도 말 현재 등록업체수는 약 160여개이나 실적 업체 수는 50여개 정도에 불과하다. 활동중인 ESCO 업체의 50% 정도가 협회에 가입했다고 볼 수 있다. 업계의 대표성을 지녔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동감하며 이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명실공히 업계 대표성을 지녔다고 자부할 수준이 될 때까지 회원 확대와 협회의 위상과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발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고유가 및 교토의정서 발효로 ESCO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ESCO업체가 추진할 사항은 무엇인가?

아마 올해 에너지업계의 화두는 기후 변화협약과 고유가일 것이다. 교토의정서의 발효(2005 2 16일에 따른 기후 변화협약 체제의 가동은 우리 ESCO

기업들에게 분명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지만 또한 많은 변화를 아울러 요구할 것이다. 기후변화협약 체제의 가동으로 10년 내에 폭발적인 에너지절약시장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어느 ESCO가 수혜자가 될 것인가는 결국 누가 10년 후를 준비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고객이 요구하는 기술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시장확대에 따라 민간자금이 도입되면서 ESCO는 이제 고객뿐 아니라 투자자의 요구 또한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ESCO는 기술력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등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올해도 초기에 ESCO자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민간자금 활용방안은?

올해 ESCO 예산 규모는 대략 1,800억원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ESCO 자금과 VA, 일반절약시설 자금을 통합 운영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다른 분야에서 자금을 소진시키면 하반기에 자금수요가 집중 발생하는 ESCO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작년이 워낙 특수한 상황이었어서 ESCO들이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올해 결과를 본 후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ESCO자금을 구분하는 등 협회 차원에

서 대안을 마련하여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자금 규모의 확대와 안정적 지원을 꾸준히 건의 예정이다. 또한 정부 자금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자금의 도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작년도에 협회의 건의로 공단에서 민간자금 활성화에 관한 연구용역 진행 중이다. 연구 결과 ESCO펀드와 같은 방안이 도출될 수만 있다면 자금의 조기소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ESCO업계의 숙원이던 부채비율 증가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연구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소형열병합 보급 확대로 타 분야의 ESCO사업이 위축된다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소형열병합 지원금액이 ESCO 지원금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에 약 4%(50억), 03년 18%(180억), 04년에 약 38%(300억)로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올해 ESCO 예산 규모는 대략 1,800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형열병합이 작년 규모의 300% 수준으로 증가한다 해도 기타 ESCO사업은 예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형열병합발전 이후 ESCO가 주력으로 삼을만한 아이템은 무엇인가?

향후 몇년간 소형열병합 시장이 전개된 후에는 기후변화협약 체제의 영향에



지난 3월 (사)ESCO 협회는 제3대 회장으로 유제인 EnE시스템 대표이사를 선출했다. 유회장은 "ESCO협회가 업계의 대표성을 확보할 때까지 회원사 확대와 역량 강화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힘입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시장이 열릴 것이고 매우 큰 장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또 온실가스의 80% 이상이 에너지소비에서 발생하고 있고 2003년 기준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55%가 산업부에서 발생하고 있어 제조업 공정개선과 에너지시스템 개선도 중요 아이템으로 부각될 것 같다.

이을러 현재 차세대조명기술로서 LED 조명기술이 개발 중이고 2008년 정도면 일반조명으로서 보급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하므로, 다시 한번 조명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추측해본다. ☺

燃焼改良 助燃劑 世界初 日本特許 第1479208
기술제휴:일본 과학기술연구소

새로운개념의 연료첨가제 탄생!!

파이로민

파이로민

산업과학 기술연구에서는 각종화합물의 용거율을 규명하던 중 약 400°C부터 산소를 미소화하는 비교적 결과 촉매제(MCF)를 개발하였으며 이 산소는 대기중에 방출하여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무해한 물질 PAG+MCF를 용재(등유)정제한 것이 파이로민입니다.

www.pyromin.com

ISO 9001 인증획득

무오염 첨가제 파이로민

5.0% 이하 파이로민을 첨가하면 연료의 입자분포를 개선하여 미연탄(Pyroding)시각 건로의 분포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5.0% 이하의 연료는 시속 100km/h를 이은 100km/h를 이은 연료에 미연탄(Pyroding)시각 건로의 분포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5.0% 이하의 연료는 시속 100km/h를 이은 100km/h를 이은 연료에 미연탄(Pyroding)시각 건로의 분포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파이로민의 효과

- 연료점화율 10% 이상 증가
- 연료점화속도 10% 이상 증가
- NOx, SOx, CO, HCN, H2O
- 보일러의 연료 소비량 2% 이상 감소
- 보일러의 연료 소비량 2% 이상 감소
- 보일러의 연료 소비량 2% 이상 감소

	첨가전	첨가후
보일러내 화염색	적갈색	담황색
보일러내 화염길이	길다	짧다
연료구(배출구)	흑연농도 진하다	무색에 가까운 백연
보진	량값만 0~1.5	량값만 0
SOx	150ppm	80ppm
NOx	200ppm	130ppm

주월드트레이딩
WORLD TRADING CO., LTD.

본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91-6 TEL: (02)515-1951(대) FAX: 514-0151
공장: 경기도 포천군 소흘읍 무봉리 18-4